

#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2월 6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64장(통198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출 25:1-9”(구약p.119) / 가족 중에서
- 말 씀 / “영적인 모형”/인도자

애굽의 피라밋이나 로마의 카타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영국의 고대 수도원과 이방 종교 사원들은 그 건축 양식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었고 어떤 건물에서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매력과 의미를 담고 있는 여호와와 성막은 사람으로부터 거절과 경멸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모형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성막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겸손하게 따르며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막을 ‘하늘의 있는 것의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참 것의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이 하늘에 있는 모형, 혹은 그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고대하던 시므온이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음’ 같이 우리도 영적인 모형이며 예표인 성막으로 찾아갑시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들 옆에 동행하고 계시던 주님을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눈이 다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보는데, 방해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곳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본문 8절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짓도록 요청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죄의 사슬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해 내기 전에는 땅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족장들,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교제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의 건립을 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하고만 거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성소를 짓도록 사람에게 제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

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타락 이전의 사람 아담과 함께 거하셨으며, 그다음에는 성막과 함께 거하셨으며, 그다음에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성육신하신 당신의 아들의 인성 안에서, 오늘날은 성도를 안에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후3:16)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2. 모형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25: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모형을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사람의 의견은 완전하게 배제되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성소를 지을 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일곱 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 이외에 어떤 것도 결코 부과시킬 수 없이 그대로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막은 완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의 모본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 3. 재료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재료들은 값비싸고 희귀한 재료들이었으며 자발적으로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소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란 항상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한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만일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오늘날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교회가 바자회를 열거나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모금의 어떤 수단을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이든 시간이든 그리고 노력이든 간에 서슴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송 / 새265장(통199)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 주기도문 / 다같이

## \*광고 :

1. 금주 수요일(2월 9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집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제에 힘쓰며, 2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